

지역 소식통



비봉면, 화재가구 구호활동 나서

완주군 비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용소방대, 대한적십자사 완주지회로 구성된 봉사자 30명이 화재가구 구호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11일 비봉면 봉산리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재준 씨 가구를 방문해 구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12일 봉사자들은 화재에 따른 폐기물을 수거하고, 주택 내·외부 청소를 실시하는 등 늦은 시간까지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쌀과 담요, 생수 등의 구호품을 임시 숙소인 마을 회관에 비치했고, 심시일반 모은 위문금을 전달했다.

김준만 비봉면장은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모든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리고, 화재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역 주민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교월동, 환경정화 활동 실시

김제시 교월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주택)는 위원 및 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2일 가작마을과 후장마을 일원에 대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교월동 만들기'를 2017년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한 주민자치위원회는 매월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중 환경정화 실시일인 이날은 장화살뿔주 등 문화제가 있는 가작마을과 후장마을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들을 일제히 수거하고 불법쓰레기 투기방지를 위한 주민홍보 활동도 병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김주택 주민자치위원장 위원은 "봄을 맞아 겨우내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위원들과 함께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심을 기르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교월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매주 1회씩 노래교실과 찾아가는 수지천교실을 운영, 지역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취약지역 청결활동과 주요 거리에 대한 꽃길 조성사업 등 지역을 위해 각종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햇감자'의 우수성 알린다

김제 지평선 광활 햇감자 축제 15일 개최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가 오는 15일 김제시 광활면 광활초등학교에서 개최된다.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는 전국 최고의 시설하우스 감자 주산지인 광활에서 간척지와 해풍 등 천혜 조건에서 자란 햇감자의 우수성을 알리는 축제이다.

해마다 4월에 개최되어 올해 10회를 맞이하는 지평선광활햇감자 축제는 주민과 관광객 등 1,500여 명이 참여하는 지역행사로서,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매해 더욱더 알찬 프로그램이 있는 행

사로 거듭나고 있다.

채건석광활면장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데 어우러지는 한마당 잔치로, 광활햇감자를 이용해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시식코너와 시종기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감자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광활감자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또한 이날 축제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실력을 갈고 닦은 광활면 주민들의 노래와 라인댄스 등을 감상할 수 있고, 전라

북도 예술버스 공연단과 가수 김정연·정주·조승우·진석의 축하무대 등 다채로운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또한 광활면민뿐만 아니라 관광객까지 즐길 수 있는 명랑올림픽, 광활면 가요제 등을 선보여 행사장에 있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

채건석 면장은 "이번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가 광활면민과 출향인들에게는 친목과 화합의 장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지평선 광활햇감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시민문화체육공원 진입도로 벚꽃길 '눈길'

김제시 김산동 시민문화체육공원 진입도로 벚나무 가로수 분홍빛 벚꽃이 지나가는 상춘객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왕벚나무는 30년생이 가장 아름답고 50년생이 되면 노목으로 약해지는데 이곳 벚나무가 20~30년생으로 생육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앞으로 약 20년 간 김제시 최고의 벚꽃길 명소가 될 전망이다.

현재 봄을 맞이해 한꺼번에 핀 벚꽃이 꽃터널을 이루고 따스한 봄바람과 더불어 꽃비를 뿌려대는 경관은 황홀함 그 자체를 뽐내고 있다.

또한 시민문화체육공원 내에도 벚꽃뿐만 아니라 산수유, 조팝나무, 목련 등이 만개해 가족 나들이객을 비롯한 김제를 찾는 외지인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으며, 드넓은 호수가 주변을 산책하고 편백나무 숲에서 휴식을 즐기는 수변공원과 자생식물원, 실개천 등이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주 주말이면 벚꽃이 절정을 이룰 것 같으며 가족·친구·연인들과 함께 꽃길을 걸으며 행복한 주말을 보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5월 2일까지... 토지 지분별 m당 가격 열람 가능

완주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3일부터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지가열람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16만9873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마친 후 감정평가사의 검

증을 거친 가격이다.

오는 5월 2일까지 20일간 완주군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에서 토지 지분별 m당 가격에 대해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완주군

청 종합민원관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 지가를 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평생학습도시 김제시는 오는 14일 시민의 학습역량 강화와 유기적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공모한 '2017년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및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18개 기관·단체 및 동아리를 대상으로 2층상황실에서 오전 10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평생학습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보조금 사용에 관한 지침 및 정산요령을 설명하고 올해 최우수프로그램에 선정된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례발표도 함께 진행되어 김제의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새롭고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접수된 23개의 동아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회를 거쳐 우수 및 신규동아리 13개소, 우수프로그램 5개 기관에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고 4월부터 운영한다.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은 김제시는 평생학습 분위기의 확대조성과 시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소방서, 산악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김제소방서(서장 박기선)는 12일 모악산 금산사 일대에서 산악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악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함께 한 이날

캠페인은 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산악사고방지 홍보물을 배부하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기구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여 등산객들과 참여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따뜻한 봄날은 산행을 즐기기에 좋은 날씨로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지만 겨울내 움츠렸던 바위가 부서지며 낙석이 되어 떨어지고, 약해진 산길의 지반이 침하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산악안전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삼례문화예술촌 숙박체험관, 민간위탁기관 선정

완주군은 삼례문화예술촌 내 숙박체험관을 운영하게 될 민간위탁기관으로 귀촌 청년 중심 단체인 '더 구루 오브 오디언스'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숙박체험관은 2013년 옛 가옥 4동을 수선해 삼례문화예술촌과 완주군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숙소와 로컬푸드를 활용한 음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번에 선정된 '더 구루 오브 오디언스'는 영상제작, 음악, 문화기획,

디자인 전문가 등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그동안 완주군 음식, 홍보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진행해 왔다.

이용될 문화예술과장은 "숙박체험관이 삼례문화예술촌, 삼례책마을과 함께 주민, 작가, 관광객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여기행이나 가볼까?

관촌 사선대
2천년전 네 신선과 네 선녀의 전설을 간직한 사선대는 조각공원 및 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원, 인조잔디구장을 갖추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천담 구담마을
섬진강 강변과 산이 어우러져 한쪽의 수채화를 담아 낸 듯한 마을로 포장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순환도로 드라이브길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전국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이 길은 수목산수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옥정호 붕어섬(외얏날)
호수 속에 있는 신비로운 섬!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봄과 가을에는 물안개로 풍경이 절정에 이릅니다.

임실군